

# 취업대신 창업...30대 1인 자영업자 급증

### 취직난·생계 압박에 우회 선택...1년새 1만7천명 ↑

### 업계 불안전성 가중 우려...창조적 아이템·전략 필요

일명 '늑강'이 취업준비생인 정모(32)씨는 지난 2월 닭요리 전문 프랜차이즈를 창업했다. 은행 공채에 응시도 했고 최근까지 공무원 시험도 준비했지만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주변에 취업을 하지 않고 음식점을 차리거나 1인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젊은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감소세에도 고용원이 없는 30대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소규모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3월 전국의 30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만7000명 증가했다.

30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년 대비 2만1000명 증가한 30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월 1만3000명 늘었고 12월에는 2만5000명으로 증가 폭을 키웠다. 해가 바뀌고 1월에도 2만4000명, 2월 1만4000명 늘는 등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30대를 제외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다른 연령대에선 제자리걸음 중이거나 감소하고 있다.

3월 기준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대에서 1000명 늘었지만 40대 3000명,

50대 3만9000명 각각 감소했다. 60세 이상에서 2만2000명 늘긴 했지만 '반쪽' 현상이었다. 60세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에는 매달 1만4000~5만5000명씩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는 1월 1만명, 2월 3000명 줄어든 바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감소세 속에서도 30대 1인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은 취직할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탓에 소규모 창업을 택한 결과로 분석된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대개 30대 초반이 되면 고용률이 눈에 띄게 상승한다"며 "20대까지 일자리를 탐색하다가 결혼 등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는 30대에 접어들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터에 나간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작년 말부터 고용 상황

이 악화하면서 취직하지 못한 30대들이 취업 대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도 차려 생계를 꾸리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취업 대신 창업을 택한 젊은이들 증가와 관련 "자영업계 구조 취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가족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업계에 젊은이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업계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계현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젊은 창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프랜차이즈업체를 비롯해 자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은 보다 창조적인 아이템과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79.06 (-38.57)
- ↓ 금리 (국고채 3년) 1.31% (-0.01)
- ↓ 코스닥 695.51 (-11.20)
- ↑ 환율 (USD) 1173.40원 (+7.90)



## 한전 소외이웃에 '에너지 나눔'

### 에너지재단에 3억원 전달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생활고를 겪는 이웃을 위해 전기요금 3억원을 지원한다.

한전은 지난 10월 직원 기부금과 회사 지원금을 더해 마련한 '사랑의 에너지나눔 사업' 기금 3억원을 한국에너지재단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랑의 에너지나눔' 사업은 한전이 200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어려운 취약 계

층의 정상적 전기사용 지원하고 있다. 이번 3억원 등 지금까지 2만여 가구에 29억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한국에너지재단(www.koref.or.kr)과 전국 한전사업소,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전 관계자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최대한 발굴해 전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가구 같은 삼성 TV 삼성전자 모델들이 13일 서울 삼성전자 매장에서 '세리프 TV'를 선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가구 디자이너 로날 & 에르만 부홀렉 형제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세리프TV는 영문 세리프 글꼴의 'I'를 닮은 독특한 옆 모습과, 화이트와 다크 블루의 모던한 컬러로 주변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갖췄다. <삼성전자 제공>

## 보안카드·OTP 사용의무

### 은행권, 이달 말부터 폐지

이달 말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아닌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자금이체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성을 고려해 현행 OTP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새로 적용할 수도 있게 된다.

/연합뉴스

## "이자 0.1%라도 더..." 돈 물리는 2금융권

### 4월 수신액 2천조원 돌파...불황에 1분기 저축률 36.2%

가계, 기업 등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맡긴 돈이 가파르게 늘어 2000조원을 돌파했다.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 양도성예금증

서(CD) 등 수신 잔액은 2022조147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등 이른바 2금융권을 가리키고 대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액이 2000조원을 넘은 것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

한 1993년 이후 처음이다.

수신액은 1993년 10월 249조335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2008년 1월 1012조7762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고 2013년 말 1576조 9799억원, 2014년 말 1735조1814억원, 작년 말 1911조1451억원으로 계속 불었다.

특히 작년에는 175조9637억원(10.1%) 늘면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다.

지난 4월 수신액 2022조147억원은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넉달 사이 110조8696억원(5.8%) 급증했다. 증가액이 작년 1~4월(104조9467억원)보다 5조9229억원 많다.

1%대 저금리의 영향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2금융권에 돈이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투명한 경기 전망에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총저축률은 36.2%로 전 분기보다 1.8% 포인트 상승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광주카드 사용하면 워터파크 할인

### 8월까지 금호리조트·여수 디오션 등 최대 35%

K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여름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13일부터 8월 말까지 KJ광주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

스포츠레저 업종 이용시 2~5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영화관에서 1st카드, 1st플레이팅카드, 더오일카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벤트 기간 중 주말(토/일)에 8000원 이상 이용 고객에 한하여 월 1회 3000원 캐시백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7월 20일까지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이용고객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나주중흥골프장과 리조트 워터파크 입장권(2매)과 고급 선풍기 30대를 증정한다.

/최재호기자 lion@

# 광주·전남 기능장1호

#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 H. 010-3119-6952

# 새 주인을 찾습니다

##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골,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 H. 010-3119-6952